

진리 생활

세상은 고해로다 고로쌓인 인생사리
만나면 이별이요 웃으며는 눈물일세
안락을 찾아봐도 고통함이 근원이요
행복을 구해봐도 행복문은 불행일세
안락과 행복함을 구하여서 얻어봐도
물로된 인간이라 희망만이 높아지고
욕심은 한이없어 한정있는 세상에서
한없는 이내욕심 다할바가 전혀없네
넓고도 좁은세상 다해봐도 별것없고
천지가 다하도록 수명장수 하오면서
이세상 부궁토록 그복록을 누리야지
그런다 할지라도 천지역시 기멸하니
세상사 무상하고 생장노사 못면하니
인생의 허망함을 생각수록 허망하다
허망한 세상에서 취할것이 전혀없네
남보다 잘살고저 부히되려 힘을쓰면
남에게 손해끼쳐 내가실은 가난주고
남보다 귀히되어 공명함을 누릴진댄
남의명 짓밟아서 내가실은 천을주니
성인의 하신말씀 기소불욕 물시어인
알고도 못행하면 알았다고 할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니 세상사가 할것없어
두주먹 바로쥐고 양심에다 호소하니
허망한 일체유상 귀일처를 밝히어서
무상한 세상에서 변함없는 진리찾아
서로가 잘살도록 마음밭을 개척하여
마음밭 지신플을 참을인사 모를삼아
있는힘 다하여서 남김없이 뽑아낸후

다시는 못나도록 뿌리조차 없애버려
도구도 잊으시고 맬것마저 잊으시면
영묘가 성해지며 잡초만은 자열하리
이같이 마음받을 지성으로 매어보세
내마음 편하오면 그것천당 아니오며
내마음 불안하며 그것지옥 아니리카
살아서 내몸속에 극락궁을 못찾으면
죽어서 구름위에 연화대를 찾을손가
아서라 세상사가 일희일비 모두싫다
유상은 무로가니 남가는곳 나도가고
나간곳 남도가니 우리인생 공로로다
자래로 이길에는 부귀빈천 차별없고
운명의 수요장단 고통함은 일양이니
영생의 진리찾아 안빈락도 살아보세
일평생 짧은세상 기리기리 살자면은
마음속 극락궁을 찾아야만 태평하리
그마음 찾아드니 마음속의 마음이라
하나는 도심이니 순선무악 불심이오
둘째는 인심이니 흑선흑악 변치쉽고
셋째는 혈심이니 순악무선 마심이라
마음속 삼천세계 천당지옥 구별하면
도심은 불벽이니 무극이천 무색계요
인심은 변역이니 태극기천 색계이며
혈심은 교역이니 황극상천 육계로다
도심은 천당이요 혈육심은 지옥이니
인심을 못면하면 지옥길이 거기로다
인심을 버리자면 밝은도심 바로잡아
상천에 높이두고 인간세계 내려보소
지구도 적을진대 적은몸을 위할손가
하늘에 뜻을두면 세속고락 망각하고
몸밖에 몸이되고 마음밖에 마음되여

지선에 끌이어서 천궁에서 놀이로다
 혈육의 이내몸을 불성에다 합일하여
 우주를 집을삼고 진리로서 양식하니
 대장부 기업체가 이만하면 넉넉한걸
 무엇이 부려우랴 세상고로 어서떨고
 고향길 어서올라 삼천대사 참례하세
 마음은 극락이요 하는일은 낙원이라
 이재미 누가아리 아는이가 아리로다
 옛적에 성인님들 성리심법 전하시여
 공성은 존심양성 집중판일 전하시고
 석가불 명심견성 만법귀일 설하시고
 노자님 수심연성 포원수일 말씀하고
 예수님 전심 성 목도친일 교하시고
 회회님 습심감성 청정반일 이르시니
 일체가 유심조며 마음밖에 마음이요
 몸밖에 몸이되여 천지로써 동화하면
 수명이 장구하고 그의덕이 무량하니
 성인의 전해주신 천만가지 그말씀을
 한말로 하자며는 극기복례 뿐이로다
 신앙의 종교인들 내가믿은 우리성인
 성인을 자랑말고 그의심법 자랑하오
 방법은 틀일지나 지극처에 도달하면
 목적은 일반이니 어느성인 택할손가
 성인의 말씀하신 이름만을 외지말고
 성인의 그마음을 마음삼아 실천하세
 이름을 안외어도 실천보아 자비하니
 실천이 없으면은 주인없는 빈집이라
 도적이 왕래하여 그집쫓아 없어지리
 하느님 따로있나 성리심법 전수하면
 이치를 아실지니 하느님을 뵈오리라
 말로서 하자며는 무성무취 공허중에

그중의 묘한이치 진공실상 이아닐까
 우리는 그중에서 살고있고 죽어간다
 죽어도 몸이죽지 그한이치 멸치않고
 생전에 지은대로 락하며는 귀가되고
 청하면 신이되여 천궁가고 지옥가니
 그구별 아르시면 하느님을 아시리라
 성인은 하느님을 아르시는 분이오니
 성인은 말씀하는 하늘이라 할것이며
 하늘도 말하자면 말이없는 성인이라
 누구나 그의심법 받으시어 일관하면
 우리도 하느님을 방촌증에 뵈오리라
 공자님 말씀하길 천지만물 보호일체
 지아자 기천이라 인내천을 말씀하여
 충서로 본을삼아 일이관지 밝히시고
 석가님 말씀하길 천지만을 무근불생
 하늘위 하늘밑에 유아독존 말씀하여
 자비로 제도하여 일원상을 밝히시고
 노자님 말씀하길 천지만물 일이소생
 하늘밑 땅위에서 유아독존 말씀하여
 감응을 본을삼아 무위법을 밝히시고
 예수님 귀하신몸 십자가에 버리시어
 법안인 우상이란 믿지말라 하시옵고
 몸속에 진아살어 천당길을 밝혔도다
 말씀은 다르지만 의미만은 같사오니
 나없고 천지없고 천지있고 나있으니
 내망음 바르면은 천지심도 바를지며
 나의기 순하오며 천지기도 순할지니
 천심이 인심이요 인심이곳 천지이라
 내마음 공허하면 천심으로 합하리니
 하늘이 인생에게 무손후박 있으리요
 우리가 선불선을 마음으로 지으니라

내마음 맑으며는 수화풍도 싫지않고
 내마음 불안하면 밝은달도 슬티보고
 황금이 만양이나 그도역시 눈물이라
 이러한 세속심이 정욕에가 달였으니
 정욕이 마수임을 하루속히 깨달아서
 본성을 바로잡아 하늘밖에 하늘찾아
 이때는 어느때요 소홀하게 하지마오
 삼양이 개태하여 백양운이 당도하고
 노모님 대자대비 대법선을 내리시여
 유연자 빠짐없이 도덕선에 올리시니
 삼기말 말후일착 삼천대사 만나쓰면
 이몸을 경을삼아 수신으로 닦아가고
 성모님 수원사업 진심갈역 하시오면
 이몸에 죄있으리 쓰는데에 달였도다
 쓰는자 누구인가 주인공을 알았으면
 주인에 들러보네 그의명을 순종하여
 사문을 굳게닫고 오는도적 막아내세
 사문은 비례물시 비례물침 비례물원
 또하나 비례물동 사물이니 죄되니라
 사문을 닫고보면 병든주인 힘을얻어
 고이든 잠을깨고 심원의마 몰아내고
 천군이 태연하여 호연정기 발휘하며
 도적은 그만두고 악마라도 조복하여
 위엄이 늠늠하고 선풍토골 되시여서
 만사에 적연부동 감이수룡 하시웁고
 천으로 동례되고 여지동수 불생불멸
 백만사 님의자제 연출법수 아시웁고
 그몸이 법신되여 대원경지 이루시며
 불광의 일윤명월 공가운데 나타내리

이 책의 저작권은 (재) 국제도덕협회(일관도)에
있으며, 무단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